

호스피스에서 만난 사람들 미술을 통한 메아리

진혜영
호스피스 미술치료사



요즘 미술치료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 뜻은 막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는 진단으로 아는데, 미술치료의 보다 더 큰 의미는 작업에 몰입하는 그 자신 스스로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에너지를 창조에너지라고 하고 싶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작업하는 그 사람 안에 흐르는 그 사람만의 표현, 그 에너지.

호스피스 병동의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를 더 실감하였다.

호스피스의 창조 에너지 안에는 서로 간에 감사, 애도, 소망, 소통이 더해진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의 만남은 사실 나에게 버거운 일이었다. 잠시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그들에게 여러 미술재료를 가져가서, 함께 작업을 해보자고 권하는 것은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무의미해 보였다. 게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더더욱 사람들과 거리를 가지게 하였다. 다른 집단에서도 어려움들은 있지만, 죽음이 함께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서는 사실 몇 배는 더 예민해진다.

하지만 호스피스의 미술치료는 여러 어려움으로 한 걸음 물러난다면, 그 다음 두 세 걸음을 나가게 했다.

호스피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그림으로 표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가족들이다. 환자나 보호자나 모두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떠올리며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 한다. 그 감사 안에는 상대를 위한 위로,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나온다.

중년의 부인은 남편이 살면서 한 번도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작업하고 난 창작물에 글로 “사랑해 여보” 라고 적은 것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세월이 더 해진 장 맛 같은 사랑고백은 그 부부의 추억이 되었다.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던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곧 식구들과 정담으로 이뤄졌으며, 모여 있던 그 곳은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돌아갔다. 가까운 기억보다 먼 기억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그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이야기에 힘이 더해졌다. 그 이야기 한 귀퉁이에 나도 끼어 할머니의 추억을 그려보았다. 할머니의 작업은 아들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며 늘 성당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리시며 마음에 새기셨다.

암이 눈으로 전이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젊은 청년은 은박지 그림 액자를 멋지게 만들어 내어 병실 벽에 걸어두고 꽤 만족하며 자신이 다하고는 선생님

덕에 잘 됐다'는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어머니께 선물하였다.

노부부가 희망의 나무라고 이름 붙인 폼나무는 침대 커튼 위에 붙여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잘 보이게 나란히 붙여 두었다. 그 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보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녀 온 봉평 메밀밭을 그리며, 찡그렸던 고통을 웃음으로 장식하며 꼭 또 놀러간다는 청년.

밀려드는 고통과 싸우며 입원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작업을 하던 중년 부인은 병동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 고맙다고 하였다. 손재주가 꽤 좋아보이던 그녀는 매우 꼼꼼하게 자신의 작업을 해냈다. 끝까지.

초등학교 때나 잡아봤지 뭐 이런 거 할 줄 아나 하면서 시작된 작업들은 자신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해졌다.

작은 작업 하나에는 그 사람이 온전히 들어가 있다. 그것을 잘 아는지 한 환자는 함께 모자이크로 만든 가을 고추잠자리를 자신의 병실 유리창에 내내 붙여 두었다. 결국 그 잠자리는 환자의 영정사진에 앉아 마지막을 함께 했다. 그 환자는 자유롭게 가볍게 훨훨 날았을 것이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나는 서로 소통하고, 애도하는 것 같았다.

애도라고 하는 것이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호스피스에서 하는 작업의 애도는 병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작업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 호스피스의 미술치료에는 너그러운 애도의 미소가 있다.

우리는 참 쉬운 표현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많다.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미술이라는 매체가 더해져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통과 싸우는 그 순간에 작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단순한

작업으로 보이는 미술치료는 분명 그들 안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말로 표현 되지 않는 그 힘을 나는 확신한다.

그 알 수 없는 힘 덕분에 우리는 작업을 하며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담아 두었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한다. 작은 작업은 서로의 가슴에 메아리가 된다.

나는 매주 월요일 호스피스 미술치료를 진행하며, 늘 감사한다. 나와 만나는 그들이 짧은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짜 자기를 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그런 치료가 잘 이뤄지도록 배려해주는 병원 호스피스 팀에게도 참 감사한다.

